

密林의 문화

黃鉉産

강원대 교수 · 불문학

1. 철민이의 밀림

「밀림의 복소리」라는 만화가 있었다. 옛날에, 정확히 말해서 지금은 벌써 옛날이 된 50년대에 국민학생들이 그것을 읽었다. 그러나 나같은 시골 학생이 서점에서 신간을 사서 읽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책이 만들어진 것은 어쩌면 그 이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50년대가 분명하다. 한국동란 이후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그 숙명적인 관계 속에 깊이 빠져든 이후에야, 그 만화의 상상력이 가능했다고 믿어져야 할 몇가지 이유가 있다. 아무튼 그것은 그 제목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듯이 밀림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이다. 아쉽게도 그 저자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 줄거리는 희미하게만 잡힐 뿐이다. 나는 이 만화가 국립도서관이나 그런 기능을 가진 어떤 곳에 자료로 보관되어 있기를 바라지만, 우선은 이 희미한 기억에 따라 이야기를 엮어갈 수밖에 없다.

용감한 한국소년 철민이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활약하는 밀림은 그 원주민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아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결코 아프리카가 아니다. 거기에는 생물도감에도 없는 동물들, 집체만한 개구리와 반인반마의 괴물 켈타우로스 따위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 밀림은 끝없이 넓어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지구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 있을 법하지 않다. 그것이 철민이의 밀림이다.

그 밀림 속에서 철민이는 지치는 법이 없다. 온갖 위험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마음

나쁜 아들에게 배반당한 늑고 병든 흑인 추장 제가-확실히 이런 이름이었다-에게 약초를 구해다 줌으로써 그가 다시 권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늑은 추장은 이제 그가 밀림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백이 된다. 그리고 철민이는 역시 밀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미국 선교사의 딸, 금발의 엘리자-이 이름은 확실치 않다-를 구해 문명의 세계로 다시 돌려보낸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황당무계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 험난한 국제사회의 파고 높은 물결 속에 던져진 미야 한국의 운명을 벌써 예견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어다불인 말이 아니다. 철민이의 밀림이 곧 서양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는 희랍의 신화에서나 가당한 그 켈타우로스뿐만이 아니다. 원주민 병사들이 비를 뿌리듯 던지는 멋진 창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병사들의 그것인 투창이다. 다른 동물들과 함께 나타나는 불을 뿜는 용은 중세의 왕자와 기사들이 퇴치했던 바로 그 용이다. 이들에게 권세를 빼앗긴 흑인 추장 제가 역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구약성서의 다윗왕이다. 이 밀림은 신화의 형태를 둘러쓰고 나타난 서양이다. 아니 신화로부터는 파악되지 않는, 따라서 결코 파악되지 않는 서양이다. 이 파악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철민이의 무한한 용기는 또한 끝없는 고난이다.

철민이가 이 숲에서 만나 그때마다 극복하는 위험은 항상 어느날 갑자기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이 형식만을 제외하면, 위험들은 모두가 같지 않다. 그 방향이 다르고, 그 질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다. 하나의 위험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다른 위험과 맞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한 '제로섬 게임'이다. 마치 도박판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한판의 싸움이 끝나고 패가 다시 주어질 때마다 항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악어떼의 공격을 피하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독화살이 날아오고, 거대한 구렁이를 물리쳤는가 했더니 등 뒤에서 사람 머리를 가진 말들이 덮쳐든다. 순간마다 닥쳐오게 될 위험을 예견하게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위험은 한 치마다 숨어 있는데,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형식상으로는 철민이가 게릴라인데,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도 창조하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모든 위험에 노출된 채, 게릴라의 모든 권리를 정규군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고 숲은 끝없이 넓다. 용감하지만, 결코 그 법칙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밀림에서 그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의 싸움은 다음의 싸움과 연결되지 않고, 위험이 주어지는 갑작스런 순간은 다른 순간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써 고립된 경험은 진정한 경험이 아니다. 숲은 언제까지나 그대로인데, 혼자 소모전을 벌이는 철민이는 따라서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나는 지금 어린 이들의 읽을거리에 관해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자. 한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오락물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장을 정지당한 어린이들의 출현이다. 그 주인공 어린 아이들은 '공산 오락개'와 싸우건, 로봇 태권브이를

조종하건, 컴퓨터를 두드리건간에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떠맡음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빼앗긴 채 잔인한 소모전에 내몰리고 있다.)

철민이에게 모험은 많아도 이력은 없다. 법칙이 없는, 신화인 이 숲에 관해 철민이는 그것이 무진장 넓었으며, 위험으로 가득차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용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할 것이다. 또 다른 아이는 똑같은 공포를 느끼며 그 숲에 들어갈 것이다. 밀림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물론 철민이는 늑은 추장 제가를 도왔다. 그러나 그것은 밀림에서 일어난 작은 이변의 결과가 원상회복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숲의 영원 불멸을 제차 강조할 뿐이다. 철민이는 또한 백인 소녀 엘리자를 구했다. 그리고 엘리자는 밀림에 끝이 있고 그 권외에 문명의 세계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되겠다. 그러나 철민이의 비극은 본질적으로 그 원시림과 문명의 세계가 하나라는 것이다. 하나인 것을 둘인 것처럼 속이는 이 엘리자의 존재는 철민이의 자기성찰과 그 위치 파악의 노력에 혼란을 안겨다 줄 뿐이다. 엘리자는 파악되지 않는 밀림이 파악될 듯한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는 순간이며, 그 점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지는 그 위험의 하나이다.

2. 모글리의 밀림

철민이의 이 밀림은 저 악랄한 식민주의자가 꾸며놓은 「정글 북」의 그것과 비교될 만하며 또한 당연히 비교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출판

- 단행본 ○전집류 ○잡지
- 교양도서 ○참고서 ○사전류
- 교과서

신문

-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잡지

- 교양지 ○전문지 ○종합잡지
- 정기간행물 ○사보

1기생 96% 취업확정

2기생 취업요청 쇄도

●취업보도실 : 671-8317

미올 편집디자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



인도民話 「오렌지 부인」, 최정은 그림전(5월 3일~8일 롯데미술관)에서.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인도의 숲에 버려진 모글리 소년은 로마제국의 건설자들이 그러했다는 전설과 같이, 늑대의 사회에 받아들여져 그 젖을 먹고 크다. 그는 밀림의 법칙에 순종하지만 그것보다 약간 우월한 그 자신으로 남음으로써 그 밀림의 작은 왕이 된다. 그는 밀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밀림에 밀림의 법칙 이상의 것이 있게 한다. 그는 뱀과 곰과 표범에 까지도 인간을 침투시켜, 자신이 원숭이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기꺼이 달려오도록 만든다. 그는 밀림의 분쟁에, 늑대와 늑대의 싸움에, 늑대와 호랑이의 싸움에 개입하여 편을 만들고 힘을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확장시킨다. 그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숲을 들여다본다. 위기는 항상 예측되며, 그것은 항상 그의 기회일 뿐이다. 차라리 위기는 그에 의해서 창조된다. 따라서 숲에는 이변이 없다.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얼핏 파악되는 밀림의 법칙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다.

키플링이 이 법칙에의 순종을 강조할 때 그 상징의 의도는 명백하다. "밀림의 법칙은 무수히 많다—아무도 그것을 폐기할 수 없

다.—다만, 머리건 나막신이건 엉덩이건 곱사 등이건 법칙은 항상 법칙이며,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순종함으로써 다른 순종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이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의 결말은 키플링의 詩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글리의 우월한 종족으로서의 인간적 자각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법칙은 모글리 이전부터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자신이다. 결국 법칙은 형편없는 것일수록, 이해되지 않는 것일수록 좋다. 그것은 권력의 기반이 되며, 권력은 인간적 우월성의 자각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또다시 권력이 된다. 제국주의적 영감 속에서 현실적 이해와 시적 서정이 이렇게 만난다.

모글리는 그 나름대로 로빈슨 크루소이기도 하고 디오게네스이기도 하다. 그는 권력자이지만 그 대상이 자발적 우정을 가진 동물들로 그려짐으로써 착취없는 축적이라고 하는 로빈슨의 신화를 교묘하게 둘러싼다. 그는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거지 철학자를 흉내내지만,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가 회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폭한 비유를 쓰자면 물에 빠지지 않는 심청이다.

한마디로 모글리는 숲을 꿰뚫고 있으며 그 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다. 그는 지치지 않으며 성장한다. 성장했을 때, 그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종족인 앵글로 색슨족의 혈통인 것이 밝혀진다.

3. 밀림의 변증법

우리는 오랫동안 철민이었으며 지금도 상당 부분이 그렇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느날 갑자기 왔다. 뜻하지 않게 해방이 되었으며, '어느 일요일 새벽'에 전쟁이 터졌다. 월남에 자유의 삽자가 세웠는데 그 월남이 망하기도 했다. 갑자기 중동에 석유파동이 있었고 또 돈도 벌었다. 어느날 중공은 '중국'이 되고, 미국과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소련과도 이제 무슨 일이 있다. 요즘은 원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출판되는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이해해야 할지 또 감감하다.

연전에 88올림픽을 기해서 어느 출판사에서 '호돌이 시리즈'라는 10여권의 만화를 호화장정으로 출판했다. 그 주인공 영민의 여행은 확실히 철민의 그것과 다르다. 그는 자신의 행로를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안내를 받고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버지의 그늘에 있다. 그러나 태권도가 3단인 영민이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돌이의 초능력에 도움을 받는데, 이 주술적 환상 속에는 여전히 철민의 그 이해되지 않는 밀림이 강력하게 남아 있

다.

철민의 밀림은 모글리의 밀림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같은 밀림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 것조차도 아니다. 모글리가 장치한 밀림을 철민이가 가고 있을 뿐이다. 처음부터 밀림은 없었으며, 그것은 조작된 신화일 뿐이다. 신화는 조작한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는 '더 잘 아는'자가 된다. 덜 아는 자는 바로 그 '덜 앎'으로써 밀림의 내용을 형성한다. 밀림은 그 자신이며 그가 만나는 위험은 그 밀림을 장치한 자의 시선에 다르지 않다.

신화는 역사가 아니지만 그 신화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西歐를 공부해야 할 이유이다. 공부하되 뿌리째 공부해야 할 이유이다.

철민이에게는 확실히 장점이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용감하며 지칠 줄 모른다. 그것은 그가 시골뜨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속는다는 것은 시골뜨기의 운명이자 장점이 아니겠는가. 밀림을 장치한 자가 자신의 성공을 믿고 끝내는 그 밀림까지 믿어버릴 때, 시골뜨기는 다만 속는다. 다시 말해서 밀림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밀림의 내용은 이루어지지만,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부터 밀림의 신화는 파괴되리라. 밀림의 놀이를 중지시키는 것은 그래서 시골뜨기일 수밖에 없다. 그는 밀림에서 빠져나오며, 그 밀림을 장치한 자까지를 그 나쁜 믿음의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밀림의 변증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번역전문

일본어(고전·현대어)
영어
중국어

- * 신속·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한국인의 감각에 맞게 제2의 창작 정신으로 번역함.
- * 문학작품·전문서적 등 어떠한 번역물도 다 취급함

세계외국어학원 번역부
☎ 553 9015~6

네모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다로그
표지 디자인·팝플렛

☎ 313-4723 이상근
백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

이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쟁이들이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여름
새벽

◀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

121-21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4-2번지 ☎ 338-6269

책과 책,
책속에 살면서도
아직 책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성은
그 오늘도 보다 성실된
자세로 좋은 책,
독자가 원하는 책을
만들기에 땀흘립니다.

관심있으신분은다음전화번호로연락하십시오!
갖출것은다갖추어놓았습니다.

T. 274-4670

한성기획